

보도시점 2025. 2. 7.(금) 배포 2025. 2. 7.(금)

**재외동포청, 애틀랜타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 점검**

- 공동주최기관 미주한상총연에 대회기 전달...현지 동포사회에 지지 요청
- 이상덕 청장 “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넘어 ‘한상 경제권’ 구축 원년될 것”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오는 4월 17~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지난 2월5~6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전시 및 컨벤션, 숙박 등 행사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했다. 또 동포경제인들과 간담회도 열어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한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했다. 이 청장은 “이번 대회는 기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넘어, ‘한상 경제권’ 구축을 위한 원년이 될 것” 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.

\* 한상경제권 : 동포기업인·상공인으로 형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, 동 경제권에서 생산·소비·교역·투자·인력이동·공급망 구축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호무역주의, 공급망 불안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

○ 이에 100여 명의 동포경제인은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상생은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한 한인 역량 집결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금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□ 이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(미주한상총연) 회장에게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서막을 알리는 대회기를 전달했다.

○ 대회기를 전달받은 이경철 회장은 “이번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동포경제인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다” 고 다짐했다.

- 이 청장은 조지아주 한국계 의원인 샘박(Samuel Park) 하원의원(민주당)으로부터 '조지아주 명예시민증'을 받았다.
  -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이 청장의 애틀랜타 방문에 대한 각별한 환영의 의미와 함께 4월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.
  - 샘박 의원은 조지아 주의회 최초의 아시아계 민주당 의원으로 2017년 조지아주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으며, 2024년 5선 도전에 성공한 한인 2세 정치인이다.
  
- 한편, 이 청장은 애틀랜타 방문에 앞서 2월2일과 3일 로스앤젤레스(LA)를 찾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사회를 위로했다.
  -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LA한인회를 격려하고, 동포청이 한인회의 구호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.
  
- 4일에는 동포청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동남부 지역을 찾아 휴스턴 동포 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정부의 동포정책 방향과 2025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.
  - 이 청장은 재외선거에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세대간 소통을 강조하고,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대한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 장 이 경 아	032-585-3220
		책임자	주무관 황 인 용	032-585-3293